

李朝前期에 있어서의 對日南海物産貿易 (中)

金 柄 夏
(日本大阪大學大學院・博士課程)

차례

- 第2章 香藥貿易(胡椒貿易을 中心으로)
 - I. 概 說
 - II. 胡椒의 需要와 胡椒種旁求問題
 - 1. 胡椒의 用途와 需要
 - 2. 胡椒種旁求問題
 - 3. 胡椒의 再輸出과 需要의 彈力性
 - III. 15世紀에 있어서의 胡椒貿易
 - IV. 16世紀에 있어서의 胡椒貿易
- 第3章 鑛 貿 易 (下)
- 第4章 그 밖의 南海物産
- 第5章 結 言

第2章 香藥貿易(胡椒貿易을 中心으로)

I. 概 說

前述한 바와 같이 蘇木은 우리나라에 輸入된 南海物産中에서 가장 많은 量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다음으로는 胡椒가 重要的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日本人의 中繼로 輸入된 南海物産에는 蘇木・胡椒以外에 鑛(錫)・水牛角・犀角・象牙・丁香・沈香・白檀香・蘇合油・肉桂・肉荳蔻・檳榔子・藿香・香木・龍腦等이 있었으나 蘇木・鑛・水牛角・犀角・象牙를 除外한다면 이것들은 모두 香藥이라 할 수 있다. 香藥이란 香料이면서 藥劑로 使用되는 物質을 말한다. 香料란 基本的으로 焚香料・化粧料・調味料로 3분할 수 있는데, 沈香・藿香等은 焚香料에 屬한다고 볼 수 있으며 白檀・龍腦等은 化粧料, 胡椒・丁香・肉荳蔻・肉桂等은 調味料에 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香藥의 歷史를 보면 東西를 莫論하고 香料로서의 用途와 藥用은 表裏一體인 것이고 嚴格히 區別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은 關係는 胡椒에 있어서 더욱 明白히 나타나고 있다.¹⁾

胡椒는 이 時期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輸入된 가장 重要的 香藥이며, 蘇木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輸入된 南海物産의 雙肩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胡椒의 供給國은 日本과 琉球였으나 우리나라의 需要는 거의 日本人의 供給에 依存하고 있었다. 李朝前期에 琉球國人이 갖고 온 胡椒의 量은 그리 많지 아니하였으며 倭寇의 妨害로 말미암아 琉球國使臣의 來朝는 偶然的으로 밖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朝廷에서 琉球에 의한 胡椒의 供給을 그

1) 補註本草綱目に 의하면 “胡椒……今遍中國食品 爲日用之物”이라 하여 中國에서는 胡椒가 널리 日常食品으로 使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胃寒・齒痛・霍亂等の 藥劑로 使用된다는 點도 指摘되고 있다(同書, 胡椒條).

리 重要視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輸入된 胡椒는 다른 南海物産의 경우와 같이 거의 琉球의 中繼에 의한 것이다. 즉 琉球船이 南方에 渡航하여 購買한 것을 日本商人이 琉球로 건너가서 購入하거나 혹은 九洲의 博多附近까지 來航한 琉球人으로부터 入手한 胡椒를 우리나라에 進上한 것이다.

胡椒는 前近代의 國際貿易에 있어서 取扱된 가장 重重한 商品의 하나였다. 近代以前에 있어서의 國際貿易은 주로 貴族이나 富裕層의 需要에 의해서 支配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對象으로 되는 商品도 거의 高價한 商品이었지만 특히 香料가 東西洋의 主要한 貿易品으로 되고 있었다. 香料中에서도 유럽이나 우리나라와 中國에서 一層 歡迎받고 一層 많이 輸入된 것은 胡椒이며 地理的 發見이나 東西의 交通에 胡椒貿易이 끼친 影響이란 결코 적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意味에 있어서도 前近代에 있어서의 胡椒貿易은 世界史的 意義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胡椒의 主産地는 高溫多濕한 熱帶 아시아이다. 특히 印度의 말라바르(Malabar)·셀론(Ceylon)·수마트라·보르네오·자와等地는 胡椒의 産地로 알려져 있으며,²⁾ 이 地方에서 産出되는 胡椒의 大部分은 유럽과 우리나라·中國으로 輸出되었다.³⁾ 유럽의 希臘에는 이미 테오프라스토(Theophrastos)時대에 輸出되고 있었지만 當時에 있어서 胡椒는 藥用으로 밖에 認定하지 아니하였고⁴⁾ 富裕層이 胡椒를 調味料 및 肉類의 防腐用으로 널리 使用하게 됨에 따라 胡椒의 輸出은 激增되었다. 山田憲太郎博士의 研究에 의하면 印度로 부터 輸出되는 胡椒의 量이 急激히 增大된 것은 로마帝政成立以後 로마市民의 生活이 向上되고 胡椒의 需要가 많아진 뒤의 일이며 當時 胡椒를 주로 하는 印度의 스파이스는 알렉산드리아港으로 부터 로마로 向하는 船舶貨物의 過半(혹은 4分の 3이라고도 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다.⁵⁾

中國의 宋·元兩朝에 있어서의 胡椒의 輸入量은 마르코 폴로(Marco Polo)가 그의 旅行記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全 유럽의 몇 10倍에 達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莫大한 것이었고 그後 南海諸國의 進貢과 琉球의 中繼에 의하여 明이나 우리나라로 輸出된 胡椒의 量도 적지 아니하였다. 中國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胡椒의 用途도 藥用과 調味에 있었으나 유럽에서와 같이 肉類의 防腐用으로는 그리 使用되지 아니한 것 같다. 當時의 유럽에서는 冬期의 飼料不足으로 말미암아 11月頃에는 多數의 家畜을 屠殺하지 아니하면 안되었고 그 屠殺肉의 防腐用으로 上流層에서는 胡椒를 使用하였던 것이지만⁶⁾ 肉類의 消費量이 적은 中國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必要性이 없었다.

明에 있어서의 胡椒의 需要量은 莫大한 것으로서 琉球船이 南方으로 渡航하여 質來한 胡椒의 大部分은 明으로 輸出되었던 것이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世宗朝 以後 日本人의 손

2) 上掲書에 “胡椒今南番諸國及交趾滇南海南諸地 皆有之 蔓生附樹”라 한 것을 보면 産地가 一層 廣汎한 것을 알 수 있다.

3) 胡椒는 長胡椒(Piper longum)와 黑胡椒(Piper nigrum)의 두 種類로 大別할 수 있다. 長胡椒는 灌木에 屬하며 乾燥한 열매를 말한다. 黑胡椒는 蔓生低木에 屬하며 그 열매가 빨갛게 成熟하기 전에 採取하여 乾燥한 것이다. 그리고 黑胡椒를 數日間 물속에 담갔다가 外皮를 벗기고 씻은 다음 햇빛에서 乾燥하면 白胡椒로 되어 香味가 增加된다. 價格은 長胡椒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이 白胡椒이다. 유럽에서는 長胡椒는 주로 藥劑로 使用되었고 白胡椒와 黑胡椒는 널리 調味料로 使用된 것 같지만(山田憲太郎博士, 東西香藥史, pp. 145~6參照), 우리나라의 記錄에는 長·白·黑의 區別이 明記되어 있지 않다. 胡椒의 品質에 대하여 그리 問題로 삼지 않았다는 事實로 보아 黑胡椒만이 輸入되었던 것이 아닐가 한다.

4) 山田憲太郎博士, 上掲書, p. 17.

5) 上掲書, p. 146.

6) 宮下孝吉博士, 西洋經濟史(古代·中世), p. 368參照.

을 거쳐 輸入된 胡椒의 量은 漸次로 增大되어 世宗 20年(1525年)頃에는 朝・日貿易의 基幹의 商品으로 되었던 것이며 胡椒에 대한 上流社會의 需要도 大端한 것이었다.

朝・日間의 胡椒貿易에 대하여서는 黑田省三氏가 先鞭을 加한 바 있다.¹⁾ 黑田氏의 研究는 胡椒의 需要에 관한 것이다. 그리하여 本稿이 意圖하는 바는 先學의 研究를 吟味하면서 解明되지 못한 點 즉 朝鮮上流層의 胡椒에 대한 調味料로서의 嗜好와 藥用으로서의 需要의 關係를 究明하고 蘇木貿易과의 相關關係에서 胡椒貿易의 展開를 數量的으로 究明하는데 있다.

Ⅱ. 胡椒의 需要와 胡椒種旁求問題

1. 胡椒의 用途와 需要

前述한 바와 같이 胡椒의 用途는 그것이 去來되는 時期와 地域에 따라 一定하지 아니하였 다. 그리하여 그 時間的・場所의 用途의 差異를 밝히는 것은 胡椒貿易의 展開過程을 究明하 는데 重要하다.

우리나라에 輸入된 胡椒의 大部分은 日本人의 中藏에 의한 것이지만 日本國內에서는 胡椒에 대한 需要란 보잘 것이 없었다. 九州에 있는 平戶商館의 英國人은 “17世紀에 있어서일 지라도 日本에서는 沈香木의 需要에 있어서 高價로 販賣할 수 있으나 胡椒는 전혀 안팔린다” 고 報告하고 있을 程度이다.²⁾ 그리하여 日本에 流入된 胡椒의 大部分은 거의 우리나라와 明으로 再輸出되었던 것이다.

胡椒는 野菜類의 料理보다도 肉類의 料理에 適合하므로 肉類料理를 嗜好로 하고 있던 李朝의 貴顯家に 대하여서는 貴重한 調味料였음에 틀림없다. 胡椒는 藥材로 널리 珍重된 反面에 中國과 朝鮮에 있어서는 上流의 嗜好를 充足시키는 調味料로서 必要不可缺한 것이었으며 蕃椒, 즉 苦草는 1596年 以後에 日本으로 부터 輸入되어 漸次 流行하였고 드디어 日用의 恒價으로서 珍錯과 같이 되고 椒醬은 鎖脾의 美藥이라 稱하여 調味料로서 鹽梅・薑桂等과 더불어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되었지만 1596年以前에는 오히려 胡椒가 愛用되고 있었다.³⁾

고추와 胡椒는 同一한 香辛料이면서도 兩者의 用途에는 相違한 側面이 있었다. 오늘날의 常識으로 말한다면 胡椒는 調味料의 하나에 不過하나 前近代의 우리나라 社會에서는 藥餌로써 愛用되고 있었다. 藥餌란 藥効가 있는 食物을 意味하며,⁴⁾ 藥用과 調味用의 二位一體의 表現인 것이다. 成宗 25年 4月에는

戶曹啓曰 今令倭人勿私進 但如長劍等物 非市人所可買也 則不可不公貿易 今琉球國使與小二殿使 朝夕將至其所獻 若有長劍等物 則公買之 資恐不給 請令富商大賈人 納綿紬十匹 以待傳曰可 但胡椒非我國產 而尤切於藥餌 今若一切禁其私進 則彼將自此不資來 國家無由得之如此等物 公貿易何如 問于戶曹⁵⁾

처럼 戶曹의 啓에 의하여 長劍等物 以外的 倭人의 私進을 禁止하기로 하였던 것이지만 胡椒는 我國에서 產出되지 않고 藥餌로써 가장 緊要한 것이므로 公貿易으로 하자고 提議하고 있는데 注目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同年 7月의 群臣會議에서 鄭文炯은

胡椒多入於諸藥 民間亦不可無者也 如今國家儲蓄甚多 姑許私貿易 以除公貿易之弊 以資民間

1) 黑田省三氏, 中世朝鮮貿易に於ける輸出物資に就いて(兒玉幸多氏編, 日本社會史の研究, 所收).

2) 山田憲太郎博士, 前掲書, p. 24

3) 黑田省三氏, 前掲論文

4) 文世榮, 우리말辭典

5) 成宗實錄, 卷 289, 25年 4月 丙寅條

藥餌之用爲使¹⁾

이라 發議하고 民間에 대하여서도 胡椒는 ‘藥餌之用’으로 不可缺한 것이므로 私貿易을 許可하도록 主張하고 있다. 結局 鄭文炯의 意見은 採擇되지 못하고 尹孝孫의 發議에 따라 公貿易을 持續하게 되었다. 胡椒의 在庫量이 豊富하다고 한지라도 胡椒의 供給은 日本에 依存하지 아니하면 안되었기 때문에 倭寇의 屬性에 관한 傳統的인 意識에서 不安을 느끼게 되고 ‘胡椒倭土產 固不可興用’과 같이 思考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調味料를 약념이라고 稱하고 있다. 약념이란 藥鹽의 訛傳이며 語源的으로는 藥餌와 食鹽의 複合名詞이다. 胡椒가 藥劑임과 同時에 調味料라는 二位一體的인 思考方式은 우리나라에서 香料를 香藥이라 稱하고 차(茶)를 茶藥이라 稱하였던 것과 비슷하다.²⁾ 林圀十六志에

胡椒 今爲食料日用之物 股價翔甚於薑桂 而國無其種 必購之日本³⁾

이라고 하여 ‘食料’로 使用되고 있음을 指摘하고 있는 것을 보면 李朝後期에는 단지 調味料로 使用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이나 胡椒는 林圀十六志가 나온 以後에도 藥劑로써 珍重되었다. 胡椒는 調味料 以外에 胃寒・嘔吐・霍亂等の 藥劑로 使用되었고 胡椒糖(胡椒糖)의 材料로도 使用되었다.⁴⁾ 만약 胡椒가 藥劑로 使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高價를 支拂하고 많은 量을 輸入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三浦倭亂에 의하여 胡椒輸入이 中絶되었을 때에 三公等은 啓하여 藥用으로써의 胡椒는 不得已한 것이나 調味用은 川椒로써 代用하도록 말하고 있다.⁵⁾ 16世紀에 이르러서는 前世紀보다도 胡椒의 用途에 대한 認識이 一層 分化하여 調味料로써의 比重이 增加된 것 같으나 胡椒는 如前히 藥用 乃至는 藥餌로써 珍重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成宗 10年代에 中央에서 問題化되고 있던 日本에 대한 胡椒種旁求도 胡椒가 貴중한 藥餌였기 때문에 行하여진 것이다. 어느 程度의 藥効가 있었는지는 疑問이나 胡椒의 藥効는 事實上으로 過大評價되었음에 틀림없고 治暑劑로써의 價値는 李朝實錄에 있는 豊富한 記錄이 雄辯으로 말하고 있다. 國內에 胡椒의 備蓄이 없었던 仁宗元年(1545年)에는 中殿의 嘔吐症으로 藥房에 胡椒를 進上케 하고 있으며,⁶⁾ 明宗 11년에는 上下將卒의 治暑用으로 胡椒10斗를 義盈庫로 하여금 下送케 하고 있다.⁷⁾ 胡椒의 藥効에 관한 考察은 本研究의 範圍外에 屬하는 것이지만 胡椒를 藥劑로 使用하지 아니하고 調味料로만 使用될 경우에도 그것이 南海渡來의 珍奇한 香辛料이며 健胃・消化 乃至 治暑劑等の 藥効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그와 같은 觀念은 條件反射의 契機로 되고 食欲을 더욱 促進시키게 될 것이다.

2. 胡椒種旁求問題

成宗朝의 胡椒種旁求問題는 오늘날의 常識에서 본다면 난센스나 같은 事件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重要な 歷史的 意義를 갖고 있다. 胡椒는 朝鮮政府가 日本人에 대하여 積極的으로 求請한 唯一한 物品이며 또 胡椒種旁求의 展開過程에서 朝日貿易의 性格의 一側面을 엿볼 수

1) 上揭書, 卷 292, 25年 7月 甲辰條

2) 三木榮博士는 “茶는 즉 藥으로서 茶와 藥은 同一視되고 있었으며 또 香料를 옛날에는 香藥이라 하였다”고 論하고 있다(三木榮博士, 朝鮮醫學史及疾病史, p. 88).

3) 林圀十六志, 10, 晩學志, 2, 菓類胡椒

4) 한글학회, 큰사전

5) 中宗實錄, 卷 12, 5年 10月 乙酉條

6) 仁宗實錄, 卷 2, 元年 7月 乙丑條

7) 明宗實錄, 卷 20, 11年 6月 壬寅條

있다.

胡椒種의 旁求가 最初로 問題化한 것은 成宗 12年(1481年) 8月이었다. 8月 21日(癸亥)에 對馬島主宗貞國은 主로 賊倭의 處斷에 관한 報告를 理由로하여 宗茂勝・平國忠等을 特遣하였다. 賊倭의 處斷에 관한 確實한 證據는 없었으나 君臣會議에서는 李坡의 啓에 의하여 引見하여 慰勞하기로 決定하였고 또 同席上에서는

胡椒劑藥 所需求其種 於倭人可也 坡曰 胡椒倭人多賚來 故義盈庫充溢 不必求種也

上曰 若倭人構費不來 則後將難繼也¹⁾

처럼 論議하였다. 즉 成宗은 胡椒가 藥劑로써 必要하므로 그 種子를 倭人에게 求함이 옳다고 말한데 대하여 李坡는 倭人이 多量の 胡椒를 가져와서 義盈庫에 充溢하고 있으므로 求種의 必要가 없음을 進言하였으나 成宗은 만약 倭人과 틈이 생겨 輸入이 끊어지게 되면 將次는 얻기 어려울 것이라 하여 憂慮하였던 것이다.

日本國王使에 대하여 胡椒種을 正式으로 求請한 것은 翌年4月이었다. 日本國王使僧榮弘을 맞아 行한 禮曹宴席上에서 胡椒種의 覓送을 依頼하고 翌月12日字로 日本國王에게 보낸 書契에도 “胡椒劑藥 所需求其種”과 같이 胡椒種旁求의 意思를 明示하고 있다.²⁾

胡椒種旁求問題가 크게 擧論된 것은 成宗12年부터 同17年까지의 6年間에 걸쳐서 12回였으나 그 中에서 明使에 대하여 求請한 1回를 除外하면 모두 日本을 對象으로 한 것이다. 日本側에서는 胡椒의 產地가 南蠻이고 日本에서는 產出되지 않으며 琉球의 中繼에 의하여 入手하고 있음을 말하였으나 朝鮮政府에서는 日本이 琉球에 依頼한다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求請한 것이다. 琉球에 依頼하는 問題에 대한 日本人의 態度는 消極적이었고 그들은 琉球에 依頼하는 것보다도 直接 南蠻으로 渡航하여 胡椒種을 求得할 뜻을 表하여 朝鮮支配層의 歡心을 얻으려 하였다.³⁾ 그들은 琉球에 依頼하더라도 胡椒種을 獲得하기가 容易치 않다는 事實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朝鮮의 支配層이 얼마나 胡椒種의 獲得에 熱中하고 있었던가는 對馬島主宗氏의 銅錢要請에도 나타나 있다. 成宗14年(1483年) 3月 朝鮮政界의 事情을 잘 알고 있던 宗貞國은 平國幸을 特遣하고 胡椒・蘇木・丁香・檳榔子等の 南海物産의 種子를 求得하기 위하여 南蠻으로 派遣하는 使船의 費用으로써 銅錢 1萬緡을 要請하였다. 즉 大船을 建造하고 南蠻使船을 派遣하려 하고 있으나 使者 및 舟子 數百人の 3年 乃至 5年間の 食糧과 그 밖에 費用이 莫大하므로 銅錢 1萬緡(10萬兩)의 下賜를 請願한 것이다.⁴⁾ 當時의 日本에서는 自體의 鑄錢機關을 갖지 못하고 12世紀頃부터 中國錢을 輸入해서 使用하고 있었으나 良好한 新錢의 不足으로 鑄錢한지 數百年이 된 古錢과 最劣惡한 私鑄錢도 通用되고 있어 個中에는 損傷된 것도 적지 않았고 또 日本에서는 적지않은 數量の 朝鮮通寶・海東通寶가 發掘되었으므로,⁵⁾ 對馬島 以外の 地域에

1) 成宗實錄, 卷132, 12年8月戊辰條

2) 續善隣國寶記, p. 9(改定史籍集覽, 第21冊收錄)

3) 成宗實錄, 卷140, 13年4月乙卯條

上揭書, 卷151, 14年2月甲申條

上揭書, 卷176, 16年3月丁未條

上揭書, 卷183, 16年9月辛未條

4) 上揭書, 卷151, 14年2月辛巳條

上揭書, 卷151, 14年2月甲申條

上揭書, 卷152, 14年3月丙申條

上揭書, 卷152, 14年3月乙巳條

5) 京都大學近世物價史研究會, 15~17世紀における物價變動の研究, p. 2. 作道洋太郎博士, 近世日本貨幣史, p. 16.

서도 우리나라의 銅錢이 流通되었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異例의인 要求를 朝鮮政府는 論難한 後에 減額하여 下賜하였던 것이지만 宗貞國이 그와 같이 大膽하게 要請한 것은 “此亦因我國請胡椒種”과¹⁾ 같이 그 原因이 胡椒種의 旁求에 있는 것이며 胡椒種의 旁求를 奇貨로 實現性이 없는 것을 提議하고 그들에게 가장 緊要한 財貨를 얻으려고 한 것이다.

宗氏의 約束은 結局 食言임이 判明되었으나 그 後도 胡椒種旁求是 斷念하지 아니하였다. 日本에 直接 使臣을 派遣하여 胡椒種을 求하는 方法에 대하여서도 論議되었으나 우리나라가 日本에 먼저 使臣을 派遣하는 것은 對外交의 傳統에 違反된다는 理由로 實施되지 못하고 一種의 懸賞을 붙여서 日本人이 進獻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²⁾

日本側에 대하여서도 胡椒種을 入手하면 大藏經・綿布等の 必要品을 賞賜로써 不等價의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無關心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나 原產地를 秘密히 하는 中繼貿易의 屬性에 의하여 말라이・자와・수마트라等地로 渡航하여 그것을 齎來한다는 것은 困難한 일임에 틀림없고 만약 日本이 琉球에 대하여 胡椒種의 覓送을 依頼하였다고 하더라도 琉球國은 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琉球王朝는 일찍부터 胡椒가 非熱帶地方의 風土에 適合하지 않다는 事實을 熟知하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琉球에서는 蘇木과 胡椒나무를 試植하고 있었고 琉球染織研究家인 鎌倉芳太郎氏가 傳하는 바에 의하면 蘇木은 오늘날에도 琉球의 久米島에 한 그루 남아 있다고 하나 試植한 胡椒나무는 成功을 보지 못하였다.³⁾

胡椒種에 대한 旁求熱이 絶頂에 달한 것은 成宗16年(1485年)이었지만 이 問題를 根本的으로 檢討하고 反省한 것도 이 해이다. 이 해의 3月 少貳殿使가 胡椒 1千斤을 進獻하자 그 數量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日本의 所產物인줄 알았으나 禮曹는 비록 日本의 所產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胡椒種을 入手하게 되면 日本側이 不利하게 되어 應하지 않을 것이므로 胡椒種을 求請하지 말도록 進言하였다. 그러나 胡椒는 藥用으로 없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同年8월에 大內殿使僧元龜이 來朝하여 大藏經을 求請한 때에도 그 交換條件으로써 胡椒種의 覓送을 要求하고 있다.⁴⁾ 그리하여 同年10月 侍講宮인 金訥(혼)은 先年 日本通信使 李亨元과 同行하여 對馬島에 갔을 때에 들은 이야기와 本草를 參考하여 南蠻物產인 胡椒種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土質이 不適當하면 生長하기 어려울 것임에 틀림없다고 進言하였다. 成宗은 金訥의 進言을 한편으로 是認하면서도 琉球로부터 輸入된 水牛가 우리나라에서 蕃殖하고 있는 예를 들어 半信半疑하였다.⁵⁾ 胡椒種의 旁求를 가장 強力하게 主張한 사람은 成宗이었던 것이지만 그 뒤로는 胡椒種旁求에 관한 積極性이 漸次로 減少되고 成宗17年8月에는 宗貞國島主가 宗繼經을 特遣하여 經費關係로 南蠻에 使船을 派遣치 못하였다고 傳言하여도 中央에서는 그 食言을 不問으로 돌리고 말았다.⁶⁾

以上과 같이 前後 6年間에 걸쳐서 버려졌던 胡椒種旁求問題는 胡椒에 대한 우리나라의 需

1) 成宗實錄, 卷152, 14年3月丙申條

2) 上揭書, 卷184, 16年10月甲申條

3) 上揭書, 卷183, 16年9月壬申條

山田憲太郎博士, 前掲書 p. 459參照

4) 成宗實錄, 卷182, 16年8月戊申條

上揭書, 卷183, 16年9月庚午條

上揭書, 卷183, 16年9月壬申條

上揭書, 卷184, 16年10月戊寅條

上揭書, 卷184, 16年10月甲申條

上揭書, 卷184, 16年10月乙酉條

5) 上揭書, 卷184, 16年10月戊子條

6) 上揭書, 卷194, 17年8月辛卯條

빛과 거기에 따른 높은 價格에 의하여 發生한 것이지만 他面에 있어서는 一方的 懷柔政策에 의하여 間접히 維持되는 朝・日間의 平和에 不安을 느끼고 必要品の 自給體制을 志向한 動向도 無視할 수 없다.

李朝의 建國以來 展開된 朝・日交涉의 이니시아티브는 倭寇의 防止에 있었고 懷柔政策에 의하여 倭寇의 主勢力을 平和的 通交者로 轉換시킴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平和는 維持되었던 것이나 그것은 拔本的인 禁寇對策이 아니며 언제 浸入하여 올지 모르는 危險한 存在로써 倭寇에 대한 警戒意識은 持續되고 있었다. 이 事實은 朝・日貿易의 展開에 一貫하여 影響을 끼치고 있으며 成宗10年代에 問題化하고 있던 胡椒種의 旁求는 우리나라의 對日認識의 一環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胡椒의 再輸出과 需要에 彈力性

朝貢을 前提로 하는 貿易에 있어서의 進上物은 大衆의 需要에 의하기 보다는 貴族의 需要에 의하여 決定된다. 그리하여 一般的으로 進上物에 대한 需要의 彈力性은 작다고 할 수 있다. 즉 進上物(輸入品)의 價格이 上昇하더라도 需要는 一定한 線에서 그리 줄지 아니할 것이고 反對로 그 價格이 下落한다 할지라도 그 需要는 그리 增大하지 않음이 普通이다. 朝鮮政府에서는 胡椒는 蘇木이나 銅・硫黃과는 달리 軍國의 所用이 아닌 것으로 看做하고 最低限度의 必要量 以上の 輸入禁制하고 있었다. 李朝實錄의 어떤 곳에서는 胡椒의 必要性이 強調되고 있으나 다른 곳에서는 “無用之物”이라고 記錄되어 있는 例가 많다. 이것은 朝鮮王朝의 財政困難을 代辯하는 表現임과 同時에 需要의 彈力性이 작다는 事實을 暗示하는 것이다. 즉 胡椒가 大衆의 需要보다도 貴族의 需要에 應해서 輸入되고 그것이 주로 藥劑로써 使用되는 限 胡椒에 대한 需要의 彈力性은 작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結果的으로는 多量の 胡椒가 輸入되었다. 胡椒의 輸入이 顯著하게 增大된 것은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成宗10年代以後의 일이지만 좀더 附言한다면 成宗14年8月現在의 中央官府의 在庫量은 700餘石이었다.¹⁾

藥餌로써 上流社會에서 愛用되고 있던 胡椒의 輸入이 이와 같이 增加한 것은 그만큼 需要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燕山君8年(1502年)1月 領議政韓致亨等 三政丞의 書에는 年間雜處用途로서 胡椒 10,396斤을 計算하고 있으며 이것은 濟用監別例用途의 蘇木 3,250斤보다도 훨씬 많은 數量이다.²⁾ 明宗12年(1557年)에 있어서 受職・受圖書人에게 加한 進上物의 制限量에 있어서도 丹木(蘇木)은 30斤임에 대하여 胡椒의 그것은 50斤으로 約 67% 많은 數字를 보여주고 있다.³⁾ 紅花에 대한 認識의 改善과 中國産絹織物의 輸入增大에 의하여 蘇木의 需要는 前世紀의 初葉에 比하여 減少하였으나 胡椒의 需要는 增大하였다. 胡椒의 輸入量이 增大함에 따라 庶民社會에 있어서도 胡椒가 藥餌로 使用되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庶民層의 有効需要는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고 大部分의 剩餘品은 中國으로 再輸出되었다.

日本으로 부터 輸入된 胡椒는 關內所用으로 남겨서 義盈庫로 하여금 所掌케 하여 殘餘部分은 隨時로 貴族 혹은 官僚・政府의 各機關等에게 賜與하였다. 製進이나 入侍 때에 王의 好意에 의하여 非公式의 賜與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普通으로는 側近貴族이나 官僚等에게 分配하고 있었으며 頒賜量은 品階의 格差에 따라 相違하였다. 成宗17年3月9일에 賜與한 것을

1) 成宗實錄, 卷157, 14年8月辛巳條

2) 燕山君日記, 卷42, 8年正月辛丑條

3) 明宗實錄, 卷23, 12年12月己酉條

보면¹⁾

大君 一碩十斗

一品宗室 儀賓 各一碩二品 各十斗

堂上官 承旨 各六斗

臺諫 各三斗

弘文館 藝文館官員 注書 兼司僕 內禁衛 各二斗

兵曹 都摠府 侍講院郎廳 尙瑞院 尙衣院 司饗院 內藥房 紫門繕工 軍器寺 典涓司 典設司官員
內官 內乘 宣傳官 忠義衛 承政院 檢律 都摠府 醫員 禁漏官 各一斗

司餼 司謁 書房色 各八升

成均館 十碩

四學 各五碩

祭享所 各一斗五升

과 같고 頒賜量에는 各階層에 따라 顯著한 格差를 보여 주고 있다. 賜與된 數量은 胡椒의 輸入量이 増加됨에 따라 增大한 것으로 보지만 一家의 年間所用은 數斤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剩餘部分은 商品化한 蓋然性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商品화된 胡椒의 大部分은 中國으로 流出되었다. 中國에서는 胡椒에 대한 需要가 많고 有利한 價格으로 販賣할 수 있었으며 “胡椒利於貿易 故赴京之人 必多資去”²⁾처럼 많은 胡椒가 赴京人에 의하여 再輸出되었다. 成宗25年5月 掌令閔頤(이)는 啓하여 一家所用의 胡椒는 4·5斤에 지나지 않는데 國家가 많이 賜與하고 있으므로 近年 以來 赴京人은 多量의 胡椒를 갖고 간다는 事實을 指摘하고 있다.³⁾ 더구나 成宗期에는 奢侈가 크게 流行하고 있었고 紗羅綾段等의 唐物에 대한 需要가 특히 많았다. 그리하여 赴京은 宮中·府中의 下命 또는 貴顯家의 請托에 의하여 胡椒를 輸出하고 많은 絹織物·藥劑等의 唐物을 輸入하였던 것이다.⁴⁾

胡椒는 주로 赴京使臣團과 密貿易者에 의하여 明으로 再輸出되었던 것이지만 서울의 使臣館貿易을 통하여 流出된 量도 적지 아니하였다. 世宗前期까지는 金·銀·丹木·白礬·十二升苧麻布·土豹皮·貂皮·寶石·眞珠·石燈과 마찬가지로 胡椒는 禁制品으로 되고 있었으나,⁵⁾ 明使의 持來品이 지극히 많아서 公家에서는 모두 交易할 수가 없었으므로 漢城府와 開城府의 富商으로 하여금 貿易케 하였고 그래도 期限以內에 貿易을 못한 수 없어서 市裏人이나 平安·咸鏡兩道 以外的 地方民에게 11升 以下の 苧麻布 및 交綺·豹皮·人蔘·丹木·白礬·胡椒等을 가지고 貿易하도록 許可하였다.⁶⁾ 그리하여 成宗10年代 以後 胡椒의 輸入量이 增大됨에 따라서 使臣館에서 去來되는 胡椒의 量도 一層 增大하였던 것이다.⁷⁾

1) 成宗實錄, 卷189, 17年3月甲寅條

2) 燕山君日記, 卷19, 2年12月癸酉條

3) 成宗實錄, 卷290, 25年5月甲辰條

4) 崔虎鎮博士, 韓國經濟史概論, p.229 參照

5) 世宗實錄, 卷20, 5年5月戊戌條

上揭書, 卷53, 13年8月乙巳條

6) 上揭書, 卷95, 24年正月丁卯條

上揭書, 卷95, 24年正月戊辰條

7) 成宗實錄, 卷157, 14年8月辛巳條

上揭書, 卷157, 14年8月壬午條

Ⅲ. 15世紀에 있어서의 胡椒貿易

胡椒의 主産地는 印度와 東印度諸島에 結진 南部아시아이다. 胡椒는 「胡」字가 가리키는 바와 같이 端初的으로 中國에 傳해진 것은 西域으로부터 이다. 後漢時代 以後 西域을 征伐하고 페르시아와 通交貿易하게 됨에 따라서 西域을 통하여 中國으로 胡椒가 流入된 것으로 생각한다.¹⁾

中國의 上流社會에서는 일찍부터 胡椒에 대한 需要가 많았고 多量의 胡椒를 消費하고 있었으므로 胡椒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傳하여진 것도 中國을 經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胡椒가 南海로 부터 直接輸入된 것은 高麗末期 以後의 일이다. 呂王元年(1389年)에 琉球國中山王察度는 使臣玉之를 派遣하여 硫黃·蘇木·甲와 더불어 胡椒 300斤을 進貢하였다.²⁾ 이것이 胡椒輸入에 관한 文獻上의 初見이지만 李朝時代에 이르러 胡椒는 斷續的으로 輸入되었다. 胡椒의 用途에 대한 知識이 庶民層까지 普及되고 利用된 것도 李朝時代에 와서이다. 定宗元年(1399年)에는 日本國大相國母가 胡椒十封을 來獻하였고 太宗6年(1406年)에는 對馬島의 宗貞茂와 「丹州守」·「肥州守」가 若干의 胡椒를 來獻하였다.³⁾

李朝前期에 있어서 朝·日貿易이 活潑히 展開된 것은 前期倭寇가 終息되었다고 볼 수 있는 世宗朝 以後의 일이다. 世宗朝에 이르러 兩國間의 貿易이 크게 이루어진 것은 世宗朝의 豊富한 財政과 李朝建國以來의 宿願이었던 禁寇政策의 成功에 의하여 배풀어진 어느 程度 自由로운 對日貿易方針에 그 基本的인 要因이 있는 것이지만 第1章에서 論한 바와 같이 日本人이 有利한 件條으로 蘇木을 入手하고 販賣할 수 있었다는 事情과도 깊은 關係가 있다.

胡椒의 輸入은 蘇木의 輸入이 많아짐에 따라서 增大되었다. 太宗朝까지 胡椒는 偶然的으로

年別胡椒進上表(1418~1427)

年	進 上 回 數	進 上 量 (斤)
世宗即位年(1418年)	3 (3)	27 (400)
世宗元年(1419年)	1 (0)	150 (0)
世宗2年(1420年)	0 (3)	0 (1,200)
世宗3年(1421年)	2 (7)	39.9 (3,800)
世宗4年(1422年)	0 (1)	0 (300)
世宗5年(1423年)	19 (51)	692 (56,070)
世宗6年(1424年)	3 (7)	45 (5,050)
世宗7年(1425年)	1 (2)	10 (1,100)
世宗8年(1426年)	0 (3)	0 (1,000)
世宗9年(1427年)	1 (4)	5 (1,500)
計	30 (81)	968.9 (70,420)
年 平 均	3 (8.1)	96.89(7,042)

※1. 括弧內의 數字는 蘇木이다.

2. 世宗實錄에 依據함.

1) 成宗實錄, 卷184, 16年10月戊子條, 補註本草綱目, 胡椒條

2) 高麗史, 卷137.

3) 定宗實錄, 卷1, 元年5月乙酉條

太宗實錄, 卷12, 6年12月丙午條

밖에 輸入되고 있지 않으나 世宗朝에 이르러서는 大體로 繼續하여 輸入되었다. 이 時期에 있어서의 1回分の 胡椒의 輸入量은 世宗2년에 宗貞盛이 來獻한 150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世宗5년에 左衛門太郎이 進上한 110斤이 많았다.¹⁾

위의 「年別胡椒進上表」는 世宗初期의 10年間에 日本人이 바친 胡椒量을 表示한 것이다. 同表에 의하면 世宗5年의 進上回數(19回)와 進上量(692斤)이 最高이며 그 밖의 年度와는 顯

人別蘇木・胡椒進上表 (1418年~1427年)

※世宗實錄에 依함

進 上 者	蘇 木			胡 椒		
	進 上 回 數	進 上 量 (斤)	1回平均 (斤)	進 上 回 數	進 上 量 (斤)	1回平均 (斤)
對馬島都都熊瓦宗貞盛	3	1,070	356.7	2	250	125
對馬島都萬戶左衛門太郎	9	6,400	711.1	4	300	75
對馬藤次郎	1	200	200	1	20	20
對馬三味三甫羅	1	300	300			
對馬州代官野馬多老重久	1	1,200	1,200			
筑前州太守藏親家	1	200	200	1	5	5
筑前州太守少武(藤原)滿貞	3	5,150	1,716.7	1	10	10
筑州官事不滿景	12	11,000	916.7	3	42	14.3
九州石城式部小輔源俊臣	2	600	300	1	10	10
九州總管源義俊	11	14,000	1,272.7	4	59.9	15
前九州總管源道鎮	10	7,000	700	4	70	17.5
肥州太守源(吉見)昌清	3	2,700	900			
肥州田平寓鎮海州太守原省後室融仙	1	100	100	1	5	5
肥前松浦源臣昌明				1	5	5
駿州太守源省(田平殿)	2	1,600	800	1	2	2
一岐州萬戶道永	2	200	100	1	20	20
一岐太守源重	3	1,900	633.3			
薩州伊集院寓鎮藤原賴久	1	200	200			
薩州源(島津)貴久(久豐의 子)	2	2,500	1,250			
日向大隅薩摩太守修理大夫源朝臣久豐	2	8,100	4,050	1	100	100
日向州太守源氏島津元久	1	100	100			
備州刺史大藏氏種	1	400	400			
九州多多良德雄(太內盛見)	1	1,000	1,000			
防長豐三州都護大內殿家姪多多良滿世	1	300	300			
作州前刺史平常嘉	4	3,000	750	1	10	10
石見州長濱因幡守	1	100	100	1	10	10
日本國王使圭壽・梵齡의 私進	1	100	100	1	20	20
日本國王使(足利將軍使)圭壽・梵齡	1	1,000	1,000	1	30	30
計	81	70,420	869.4	30	968.9	32.2

1) 黑田省三氏は 世宗5年(應永30年)6월에 對馬島의 早田左衛門太郎이 바친 20斤과 同年 10월에 薩摩의 島津久豐이 바친 100斤이 記錄의 多量으로 齎來한 例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明白히 誤謬이다(黑田省三氏, 前掲論文, pp. 150~1).

隔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世宗5年은 蘇木의 輸入量도 絶頂에 達하고 있으며 大體로 胡椒의 輸入은 蘇木의 輸入에 比例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世宗5年은 劃期的으로 貿易이 이루어진 해이다. 同年의 蘇木輸入量은 56,700斤으로서 全體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胡椒의 그것은 692斤으로서 全體의 約 71%를 차지하고 있다. 世宗初 10年間에 있어서의 胡椒의 輸入量은 約 969斤으로서 量의 面에서 본다면 그리 많은 胡椒가 輸入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다음의 「人別蘇木・胡椒進上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地域에 따라서 輸出된 蘇木과 胡椒의 比率이 偏在되어 있다. 즉 蘇木은 北九州의 源義俊과 平滿景이 全進上量의 35.5%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하여 胡椒는 對馬島의 宗貞盛과 左衛門太郎이 全體의 56.8%를 進獻하고 있다.

이 事實은 當時에 있어서의 西日本諸地域의 南海貿易과 朝鮮貿易의 모습도 어느 面에 있어서 暗示하고 있다. 즉 蘇木貿易에 있어서는 九州 特히 博多가 優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博多의 朝鮮貿易은 蘇木貿易과 盛衰를 같이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特殊한 關係에 있고 己亥東征을 前後하여 勢力이一時 後退한 對馬島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 않고 蘇木보다 一層 비싸며 朝鮮의 支配層이 切望하고 있던 胡椒를 一層 많이 바침으로써 貿易上의 勢力을 回復시키려 하였던 모습을 엿볼 수 있다.¹⁾

그리고 世宗5年頃은 私獻한 胡椒의 量도 많았던 것 같다. 世宗6年正月 戶曹의 啓에 의하면 日本國客人이 가지고 온 私物을 市裏人으로 하여금 貿易케 하였으나 市裏人의 射物에는 限度가 있고 다 購買할 수가 없었으므로 銅・鑛・丹木(蘇木)・胡椒・太刀等を 工曹・軍器監・義盈庫等에게도 貿易하도록 하였다.²⁾

胡椒는 世宗初期보다도 中期以後에 있어서 一層 많이 輸入되었다. 그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明使가 가지고 온 商品에 대한 支拂手段으로써 胡椒가 흔히 利用되었다는 事實에 의하여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胡椒의 進上量이 激增한 것은 胡椒種旁求問題가 惹起된 成宗10年代以後의 일이다. 世宗30年(1448年)6월에 渡來한 日本國使僧正佑等の 禮物에는 胡椒300斤이 포함되어 있었고³⁾ 翌年2月 薩摩州의 藤原熙久가 進獻한 胡椒는 9斤이었으나,⁴⁾ 成宗10年代에는 胡椒의 輸入量이 增大되어 問題로 되고 있었다. 앞에서指摘한 바와 같이 胡椒種旁求問題에는 一種의 懸賞이 붙어 있었으므로 그것이 間接적으로 胡椒의 供給을 刺戟한 것 같다. 成宗16年(1485年)3月 小武政尙의 使人은 胡椒 1,000斤을 來獻하였지만⁵⁾ 蘇木의 事例와 마찬가지로 「土宜來獻」이란 李朝實錄의 記錄中에 多量의 胡椒가 包含되어 있는 것으로 看做된다. 이와 같은 事實은 王族이나 高級官僚・政府의 各機關 및 成均館等에 下賜한 胡椒의 數量이 激增한 事實에 의하여서도 알 수 있다. 成宗17年3月에는 成均館에 下賜한 胡椒만도 10石이었다.⁶⁾

胡椒輸入이 増加함에 따라서 代價로 支拂되는 織物이 不足하여 問題로 되고 있었다. 胡椒의 輸入量은 蘇木이나 銅・硫黃보다도 훨씬 적었지만 成宗後期에 있어서의 價格은 正布約

1) 이 時期에 있어서의 薩摩地方의 貿易者도 顯著히 進出하고 있으나 蘇木의 進上量은 全體의 約15~6%이며 胡椒의 그것은 約 18%에 지나지 않는다.

2) 世宗實錄, 卷23, 6年正月辛丑條

3) 上揭書, 卷120, 30年6月乙亥條

4) 上揭書, 卷123, 31年2月丙子條

5) 成宗實錄, 卷176, 16年3月丁未條

6) 上揭書, 卷189, 17年3月甲寅條

1匹半으로 推定되며¹⁾ 이것은 蘇木의 約5.5배이므로 胡椒의 進上에 의한 財政支出은 적지 아니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成宗17年4月에는 少貳殿使가 가지고 온 胡椒 1千斤의 價格이 1,118匹로 減少되어서 問題化하고 있었다.²⁾ 同使人은 少貳殿이 大內殿과 對馬島主보다 差別하여 待遇를 받고 있는 事實을 指摘하여 加給을 請하고³⁾ 드디어 成功을 보았던 것이지만 “今從願加給 則後來者効之 難可繼矣”처럼 그 裏面에는 財政困難에 대한 配慮가 있었다. 成宗17年11月 現在の 國儲는 世宗朝의 2分の 1인 50萬石이었으나 「倭人回奉」은 1년에 50萬匹以上이었다.⁴⁾ 翌年1월에 있었던 特進官 李德良의 啓는

倭人賣來雜物 官自和賣 其償費甚多 一年所入諸司奴婢貢布 不足以供一年之費 恐將不能支也
如製刀紫硯搥子胡椒等物 積於無用 請令和賣以補之⁵⁾

처럼 이 時期에 있어서의 輸入의 增大과 거기에 隨伴하는 財政支出의 不均衡을 잘 表現하고 있다. 成宗末期以後에 있어서 胡椒를 「不緊」乃至「無用之物」로 보고 그 價格을 引下함으로써 胡椒의 進獻量을 制限하려고 한 것은 모두 높은 胡椒의 價格과 現物貨幣의 機能을 갖고 있는 織物의 不足에 의한 것이다.⁶⁾ 그리하여 成宗25年(1494年)3月에는 胡椒·丁香·朱紅等の 私獻을 一切 禁止하였지만,⁷⁾ 根本적인 解決策은 아니며 絨足不足에 대한 하나의 彌縫策에 지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⁸⁾

Ⅳ. 16世紀에 있어서의 胡椒貿易

朝鮮政府의 日本貿易에 대한 統制政策은 三浦倭亂以後 一層 強化되었다. 中宗7年(1512年)에締結된 壬申約條는 그 具體的 表現에 지나지 않다. 本約條의 接待節目에는 日本人의 三浦居留를 禁하고 對馬島主의 歲遣船 50隻·歲賜米豆 200石을 半減하며 特送船制度를 廢止하고 島主의 아들이나 代官의 受職人·受圖書人에 대한 米豆의 下賜와 歲遣船의 特惠를 取消하며 深處倭(對馬島를 除外한 遠方在往의 倭人)의 受職人·受圖書人은 再審査하여 人數를 減少시킨다는 것이 主內容이다. 그리고 倭使에 대한 開港場은 齋浦 1港으로 限定되었다.⁹⁾ 두말할 것도 없이 이와 같은 諸制限으로 가장 큰 打擊을 받은 것은 對馬島의 宗氏였다. 三浦의 居留가 禁止되면 租稅의 形態로 居留民으로부터 徵收하고 있던 島主의 收入이 減少하게 되고 島主의 아들이나 代官의 受職人·受圖書人에 대한 特惠가 取消되면 島主의 支出이 前

1) 李朝後期에 있어서의 胡椒 1斤에 대하여 綿布 1匹로 來來되었다(增正交隣志, 卷1).

2) 成宗實錄, 卷190, 17年4月癸未條

3) 우리나라에서는 少貳殿의 所居가 深遠하여 對馬島와는 事情이 다르므로 少貳殿使가 激怒하여 가더라도 邊患으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支配的이었다.

4) 成宗實錄, 卷197, 17年11月辛亥條

5) 上揭書, 卷199, 18年1月癸丑條

6) 上揭書, 卷217, 19年6月丁未條

上揭書, 卷288, 25年3月己酉條

明宗實錄, 卷12, 6年10月戊寅條

7) 成宗實錄, 卷288, 25年3月己酉條

上揭書, 卷289, 25年4月乙丑條

8) 私獻이 禁止된以後 日本人의 渡來가 減少된 것은 否認할 수 없으나 그後 7~8年間 倭使가 中絶되고 來到지 아니하였다는 增正交隣志(卷1)의 記錄에 대하여서는 疑問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私獻이 禁止된 後도 日本人이 頻繁히 渡來하고 있었다는 것을 燕山君日記에 의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9) 中宗實錄, 卷16, 7年8月辛酉條

上揭書, 卷16, 7年8月壬戌條

보다 增大될 것임에 틀림 없지만 宗氏가 喪失한 最大의 特權은 歲遣船과 歲賜米豆가 各各 25隻・100石으로 半減되고 特送船의 派遣이 禁止된 事實이다. 그리고 深處倭의 受職人・受圖書人數가 減少되면 宗氏가 文引(通行確認書)을 發行함으로써 取得하고 있던 手數料의 收入이 그만큼 줄게 된다.

宗氏에게는 朝鮮貿易이 그 生命線이었으므로 以上과 같은 諸制限을 坐視하려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宗氏의 文引없이 往來할 수 있는 國王使에게 依賴하여 끊임없이 交渉하는 한편 裏面에서는 國王使가 宗氏의 貿易을 代行하는 異例의인 現象이 나타났다.¹⁾ 三浦倭亂後 受職・受圖書人으로서의 通交權을 剝奪당한 博多商人도 日本國王使船主로서 渡航하고 있었고 大內殿・少貳殿使의 通交도 끊임이 없었으나 日本國王使가 貿易上 가장 重要的 役割을 하고 있었다.²⁾ 日本國王使船의 渡來는 主로 對馬島의 求和와 歲遣數의 增加交渉을 口實로 삼았으며, 明宗朝에 걸쳐서 거의 每年 끊임없이 渡來하고 있었고³⁾ “日本使臣古則七年間一來 今則年年每來我國之事通事盡言之”의 形便이었다.⁴⁾

日本國王使의 경우도 물론 朝聘은 名目에 지나지 않으며 實際의 目的은 貿易에 의한 利潤獲得에 있었다. 16世紀에 이르러 琉球의 南海貿易은 一層 衰退하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日本人에게는 南海物産을 入手하기가 前世紀에 比하여 一層 不利하여졌다.⁵⁾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胡椒의 需要는 增大하여 마지아니하였으므로 高價한 胡椒를 마치고 不等價의인 回賜品을 獲得하는 것이 有利하다. 이 경우 日本人의 利潤動機와 朝鮮政府의 財政困難이란 相反하는 與件에도 不拘하고 懷柔策을 維持하기 위하여 不條理한 去來를 持續하지 아니하면 아니되었던 것이다.

16世紀의 20年代以後에 있어서의 胡椒輸入量의 增大와 거기에 따라서 가끔 提起된 價格의 問題는 以上과 같은 事情을 背景으로 하여 展開되었다. 이 時期에 있어서의 蘇木의 輸入額은 前世紀에 比해서 減少되었으나 胡椒의 輸入額은 반드시 減少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中宗20年頃에는 胡椒가 朝・日貿易의 基幹的 商品으로 되고 있었다. 中宗19年(1524年) 12月 戶曹은 倭人이 가지고 온 胡椒를 모두 서울로 輸送하면 驛路가 弊害를 입게 되므로 留浦하여 貿易케 하도록 要請하였다.⁶⁾ 驛路의 被害를 表面에 내세운 것은 그만큼 倭인들이 가지고 온 胡椒의 量이 많았다는 것을 意味하며 또 胡椒價로 支拂되는 織物의 不足을 調節하려는 政策的 配慮도 생각할 수 있다. 胡椒는 政治・經濟의 中心地인 서울로 上送함으로써 主務官廳인 禮曹과 直接 交渉할 수도 있고 公・私貿易에 의하여 一層 有利한 條件으로 販賣할 수도 있으나 留浦를 당하면 그것이 거의 不可能하게 되므로 倭人에게 不利하게 되고 胡椒의 輸入量은 減少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하여 中宗19年11月 大內殿使(仁淑西堂이 가지고 온 胡椒는 留浦시킨 다음 舊價에 의하여 貿易케 하였던 것이지만⁷⁾ 日本으로부터 流入하는 胡椒의 量이 增大되고 朝鮮王朝의 財政이 惡化됨에 따라서 胡椒에 대한 制限은 一層 強化되었던 것이다. 中宗朝의 胡椒에 대한

1) 上揭書, 卷48, 18年7月甲午條
上揭書, 卷54, 20年4月丁巳條
上揭書, 卷102, 39年4月丙戌條

2) 小栗田淳博士, “中世に於ける日鮮銅貿易の研究”(社會經濟史學, 第2卷, 6號所收)參照

3) 上揭論文

4) 中宗實錄, 卷55, 20年11月丁卯條

5) 金柄夏, “李朝前期における對日蘇木取引”(大阪大學經濟學, 第15卷, 第2號所收)參照

6) 中宗實錄, 卷52, 19年12月己未條

7) 黑田省三氏, 前揭論文, p.155.

制限은 留浦와 「物價」의 改定 그리고 公私貿易의 比率를 통하여 행하여졌고 公馬貿易의 比率는 普通 3分の 1 乃至 3分の 2였으나 그것은 世宗朝의 丹木・銅・鐵에 대한 交貿易目에 比하면 一層 伸縮性이 있는 制限이었다.¹⁾

中宗20年(1525年)4월에 來朝한 日本國王使는 9名の 우리나라 漂流人을 刷還하였고 景林東堂等 一行 22名은 그 翌월에 入京하였다.²⁾ 上京한 使臣 景林東堂은 萬壽寺禪寺改削助緣 木綿 1萬匹과 胡椒의 公貿易・對馬島主特送接待・歲遣船數의 追加를 求請하고 있으며³⁾ 그 때에 가지고 온 商物은 胡椒 9,988斤・朱紅 1,880斤・沈香 2,180斤・龍腦 28斤・紫檀香 150斤・水牛角 1,000本・大狼皮 10枚였다. 우리나라에서는 紫檀香은 우리나라에서 生産된다는 理由로 貿易하지 아니하였고 水牛角과 大狼皮는 모두 公貿易으로 購買하도록 하였으며 胡椒・朱紅・沈香・龍腦는 3分の 2만 公貿易으로 하였고 나머지의 3分の 1은 私貿易케 하였으나 商物의 總額은 舊價로 換算하면 綿布 87,500匹이고 新價로 換算하면 59,250匹이었다.⁴⁾ 前年の 中宗19年(甲申年)에는 日本人이 가지고 온 物品에 대한 價格改定을 斷行하였던 바⁵⁾ 胡椒는 新價가 비쌌으나 其他는 모두 舊價보다 낮게 評價되었기 때문에 倭人들의 不滿을 사게 되고 결국 舊價에 의하여 支拂되었지만⁶⁾ 그 公貿易價는 綿布 53,150匹이었고 그 밖의 私貿易에 의한 代價까지 합하여 景林東堂이 가지고 간 綿布는 85,000匹이었다. 그리고 綿布 以外에 日本國王使臣의 接待에는 米穀 1,400餘石을 消費하였다.⁷⁾ 中宗23年(1528年) 12月에는 日本國王使 鵜東堂이 多量の 胡椒와 沈香・龍腦・朱紅을 가지고 왔고 그 代價로 綿布와 正布 60,000餘匹이 支給되었다.⁸⁾ 그리고 같은 해에 少貳殿等の 使人이 가지고 온 胡椒・弓角(水牛角)・硫黃等の 公貿易價가 綿布 21,500匹이었다는 事實을 보더라도⁹⁾ 이 時期에 있어서의 胡椒의 輸入量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中宗20年代에 있어서의 輸入의 增大에 대한 彌縫策으로는 輸入量의 制限 以外에 綿布品質의 引下와 價格의 改定이 행하여졌다. 輸入品에 대한 新價가 決定된 것은 中宗19年이었지만 그것이 完全히 實施된 것은 5年後인 中宗24年이다.¹¹⁾ 引下된 新價는 舊價의 約 58%였으므로¹²⁾ 新價의 強行은 劃期的인 措置였음에 틀림없다. 中宗24年 以後 同32년까지 日本國王使

1) 中宗實錄, 卷54, 20年4月丁巳條

上揭書, 卷54, 20年5月己卯條

上揭書, 卷54, 20年5月甲子條

上揭書, 卷55, 20年8月丙午條參照

2) 上揭書, 卷54, 20年4月丁未條

3) 上揭書, 卷54, 20年5月己卯條

4) 上揭書, 卷54, 20年8月丙午條

5) 上揭書, 卷65, 24年2月戊子條

6) 中宗24年2月, 三公은 “去乙酉年 景林東堂來時 物年依舊例給之者 當時立法未久 兩國必不知之故也”라고 啓하고 있다(上揭書, 卷65, 24年2月戊子條).

7) 上揭書, 卷55, 20年9月辛巳條

上揭書, 卷55, 20年11月丁卯條

8) 上揭書, 卷65, 24年2月戊子條

9) 上揭書, 卷62, 23年8月壬寅條

10) 李鉉琮氏는 “中宗朝에 있어서의 銀貿易이 頂點을 이루고 있으며 餘他는 亂前보다 減少된 것으로”라고 있으나(李鉉琮氏, 朝鮮前期對日交涉史研究, p. 192), 胡椒까지 包含시킨 點에 대하여서는 잘 納得이 안간다.

11) 中宗實錄, 卷65, 24年2月戊子條

上揭書, 卷65, 24年2月癸巳條

12) 禮曹判明尹殷輔等은 “若以舊價給之 則綿布一千二百餘同 以新價給之 則七百餘同 其數半減於舊價”와 같이 啓하고 있다(中宗實錄, 卷65, 24年2月戊子條).

의 來朝가 中斷된 것은 以上과 같은 價格改定에 의한 것으로 看做된다.

中宗後期 以後에는 銀이 主要貿易品으로 登場하고 中宗30年頃에는 ‘今來倭人只持銀兩 而不持他物’의 形便에 있었으나¹⁾ 胡椒의 需要는 減少되지 아니하였고 胡椒의 輸入額도 적지 아니하였다. 朝・日貿易이 一層 制限되어 있던 中宗末年에 있어서도 年間 6,70隻의 貿易船이 胡椒・丹木(蘇木)・龍腦 등을 싣고 來航하여 綿布와 米豆를 搬出하고 있었던 것이다.²⁾

明宗朝에 이르러서는 國王使의 迎逢船에도 胡椒와 丹木을 積載하고 있다. 迎逢船은 “迎送之船”이라고도 稱하며 많은 卜物(回賜物)을 한꺼번에 搬出할 수가 없는 경우에 그것을 輸送하기 위하여 來航하는 對馬島의 船舶으로서 ‘指路船’의 例와 같이 定約船數 以外에 屬하며 特別取扱을 받았다.³⁾ 그러나 迎逢을 目的으로 하여 來航한 船舶이 長期間 停泊하여 接待等에 弊害가 생겼기 때문에 그 接待船數는 國王使 2隻 少貳殿使 1隻으로 制限된 例도 있었으나⁴⁾ 原則적으로는 臨機應變으로 措置하는 것이 普通이었다.

迎逢船의 本質에 대하여서는 史料不足으로 不明한 點이 많으나 明宗即位年(1545年) 以前에도 日本國王使에 回賜된 綿布와 食糧이 많아서 國王使船만으로 輸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對馬島 船舶의 援助를 求하고 있었다. 즉 中宗37年(1542年)7月 日本國王使安心東堂이 公貿易한 官本綿은 6萬匹이었고 私貿易에 의하여 獲得한 綿布까지 합하면 쌓은 것이 山과 같아서 3,4隻의 船舶으로는 모두 搬出할 수가 없으며 對馬島船舶으로 하여금 運送케 하였던 것이다.⁵⁾

그리하여 明宗初期의 迎逢船은 回賜物運搬을 重要な 役割로 하고 있으며 迎逢船이 來航할 때마다 多量의 胡椒와 丹木을 가져오고 있었다. 明宗朝에 있어서도 日本人에게는 丹木・胡椒價格의 引下가 如前히 問題로 되고 있었다. 日本人의 丹木・胡椒의 輸入原價가 騰貴한 點에도 그 原因이 있는 것 같지만 이 時期에는 日本國內에 있어서의 綿布의 實價價格은 銀價에 比하여 下落하였었다.⁶⁾ 그리하여 日本人은 銀價에 準하여 胡椒・丹木의 價格을 引上하도록 要求한 것으로 본다.⁷⁾

明宗12年(1557年)에는 受職・受圖書人에 대하여 進上物의 制限을 斷行하여 1人當 最高限度는 胡椒 50斤・丹木 30斤으로 決定하였던 것이나 “朝鮮送使國次之書契牒”에 의하면 宣祖13年(1580年)부터 同19년까지의 7年間に 있어서의 胡椒의 進上量은 115斤에 지나지 아니하다.⁸⁾ 同期間に 있어서의 丹木의 進上量은 12,370斤으로 最大限度인 30斤進上者가 많음에 대하여 胡椒의 경우는 制限限度와는 比較가 되지 않을 정도로 少量인 것이다. 이와 같은 事實은 같은 南海物産이면서도 蘇木(丹木)과 胡椒와는 供給上의 事情이 相違하였다는 것을 意味

1) 上揭書, 卷88, 33年8月己未條

2) 上揭書, 卷102, 39年4月壬辰條

上揭書, 卷102, 39年4月丙戌條

3) 明宗實錄, 卷 5, 2年3月癸丑條

中宗實錄, 卷21, 9年11月甲申條

李鉉琮氏は 迎逢船에 대하여 “一部 制約된 貿易船이 迎逢船이란 名稱으로 카파되어 對馬島의 貿易船이 還元된 것으로” 보고 있다(李鉉琮氏, 前揭書, p. 121).

4) 明宗實錄, 卷2, 即位年10月壬辰條. 李鉉琮氏, 前揭書 p. 120參照

5) 中宗實錄, 卷98, 37年7月乙丑條

6) 日本奈良地方에 있어서의 中宗28年(天文2年, 1533年)6月의 實綿價格은 1把當 600文이었으나 明宗元年(天文15年, 1546年)8月의 그것은 280文 乃至 300文이었다(京都大學近世物價史研究會, 15~6世紀における物價變動の研究, p. 144)

7) 明宗實錄, 卷14, 8年2月壬申條

8) 第1章 參照

하는 것이 아닐까. 이를테면 天正年(宣祖12年¹⁾ 1579年)에 日本에 있어서의 胡椒價格은 斤當 634文이었음에 대하여 天正10年の 木綿은 1反에 872文이라는 安價를 보이고 있으므로,²⁾ 이時期에 있어서의 胡椒貿易은 그리 利潤이 많지 아니하였던 것 같다.

宣祖朝에 있어서의 이와 같이 보잘것 없는 胡椒의 輸入도 壬辰倭亂을 契機로 하여 完全히 杜絶하게 되었고 그 再開는 17世紀를 기다리지 아니하면 아니되었다. 다만 이 期間에는 明을 통하여 약간의 胡椒가 流入되었음에 지나지 않다.³⁾

<追 記>

最初の 豫定으로는 第2章으로서 本論文을 끝맺으려 하였으나 그 後에 蘇木・胡椒 以外の 南海物産에 대하여서도 不明하였던 것이 밝혀져서 부득이 本稿를 上・中・下로 나누어서 發表하게 되었다.

1) 京都大學近世物價史研究會, 前掲書, pp. 97~147參照.

2) 宣祖實錄, 卷117, 32年9月 丁巳條.